

현대중국어 ‘嗎’ 시비의문문의 경향성 해석과 응답 체계

임정현*

<目 次>

1. 들어가며
2. ‘嗎’ 시비의문문의 의미 해석과 통사 특징
 - 1) 화자의 경향성 해석
 - 2) 통사적 공기 성분 제약
3. ‘嗎’ 시비의문문에 대한 응답방식
4. 나오며

1. 들어가며

현대중국어에서 시비의문문(是非問句)과 정반의문문(正反問句)은 질문에 주어진 명제가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한 극성값(polarity value)을 묻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¹⁾ 그러나 일찍이 Li and Thompson(1981), 劉月華(1987) 등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두 유형의 의문문은 의문문의 전달의미, 특정 통사성분과의 공기(co-occurrence) 여부, 질문에 대한 응답방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Hamblin(1958)의 고전적인 분석에 따르면, 의문문은 상호 배타적인 가능한 명제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변항(variable)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령 의문사의문문 ‘今天星期幾?(오늘 무슨 요일인가요?)’는 ‘월~일요일’의 가능한 명제 집합이 질문의 변항으로 작용하여 그 중 하나가 답변으로 선택된다. 시비의문문과 정반의문문은 표면적인 의문형식에서 구분되지 만, 아래 (i-ii)와 같이 모두 긍정명제 p 와 부정명제 $\sim p$ 의 양극성 명제가 질문의 변항으로 기능하며 긍정값(positive value)과 부정값(negative value) 중 하나의 극성값이 답변으로 선택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i) a. p 嗎? $\rightarrow p \vee \sim p$?

b. $\sim p$ 嗎? $\rightarrow \sim p \vee \sim(\sim p)$? (= $\sim p \vee p$?)

(ii) $p \sim p$? $\rightarrow p \vee \sim p$?

보인다.

- (1) a. 這個星期六他去學校嗎? (이번 토요일에 그는 학교에 가나요?)
 b. 這個星期六他不去學校嗎?
 (이번 토요일에 그는 학교에 안 가나요?)
- (2) 這個星期六他去不去學校?
 (이번 토요일에 그는 학교에 가나요 안 가나요?)
- (3) a. 星期六他常去學校嗎? (토요일에 그는 늘 학교에 가나요?)
 b. *星期六他常去不去學校?
- (4) A. 星期六他去學校嗎? (토요일에 그는 학교에 가나요?)
 B: a. 是。 / 去學校。(네./ 학교 갑니다.)
 b. 不是。 / 不去學校。(아니오./ 학교 안갑니다.)
- (5) A. 星期六他去不去學校? (토요일에 그는 학교 가나요 안 가나요?)
 B: a. *是。 / 去學校。(*네./ 학교 갑니다.)
 b. *不是。 / 不去學校。(*아니오./ 학교 안갑니다.)

시비의문문은 예문 (1)처럼 ‘他去學校(그가 학교에 간다)’는 긍정명제 혹은 ‘他不去學校(그가 학교에 안간다)’는 부정명제 뒤에 어기조사 ‘嗎’가 첨가된 형식이고, 정반의문문은 (2)와 같이 술어의 긍정형과 부정형이 연용된 형식이다. 의미적으로 예문 (2)가 단순히 명제의 긍정/부정값에 대한 청자의 답변을 중립적(neutral)으로 요구하는 것에 비하여, 예문 (1)에서 화자는 사전에 긍정값 혹은 부정값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청자의 확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립적인 정반의문문과 달리 시비의문문은 특정한 긍정/부정값에 대한 믿음, 기대, 의도 등 비중립적(non-neutral)인 화자의 경향성(bias)을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긍정시비의문문 (1a)는 ‘토요일에 학교 간다’는 긍정값 외에도 ‘토요일이니 학교에 안 간다’는 부정값을, 부정시비의문문 (1b)는 ‘토요일에는 학교 안 간다’는 부정적 의도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토요일이지만 학교 간다’는 긍정값을 함축할 수 있다.²⁾ 또한 통사적으로 예문 (3)에서처럼 ‘常, 都, 也’

2) 이처럼 표면적인 문장 구성성분 밖에 화자의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비의문문이 전달하는 의미는 엄밀히 말하면 ‘의미적’이라기보다는 ‘회용적’이다. 그러나 ‘극성값, 다항선택, 특정초점향’ 등 의문문의 전달의미와 ‘물음, 질문, 질책, 반어’ 등 의문문의 회용기

등 부사어는 시비의문문에서만 문법적이다. 마지막으로 예문 (4-5)는 시비의문문과 정반의문문 모두 긍정 혹은 부정 명제 중 하나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응답어 '是(네)/ 不是(아니오)'는 시비의문문의 답변으로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정반의문문과 구별되는 시비의문문의 이와 같은 특징에 대하여, 黃國營(1986), 袁毓林(1993), 郭銳(2000)은 '嗎'의 통시적 변화와 해석 차이에 주목하고, 화자의 확신정도(credibility)에 따른 의문유형과 통사 제약 및 응답방식의 차이를 폭넓게 언급하였다. 그러나 순수한 질문으로서의 중립적 해석과 구별되는 포괄적 의미로서의 비중립적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확신정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고 개별 예문의 확신정도 판단에 대한 견해 또한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더불어 확신정도가 높을 때 부사어와 공기할 수 있고 '對(맞아요)/ 是(的)(네)'로 응답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앞선 예문 (1-5)에 열거된 현상을 기술한 것일 뿐 왜 확신정도가 높을 때 이러한 특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결여되어 있다. 그 외 徐盛桓(1999), 邵敬敏(2012) 등 이어지는 후속연구는 대부분 경향성이라는 의미 해석과 그로 인해 파생된 질문·확인·반문 등 화행(speech act) 효과에 집중되어 있고, Huang(2014), Wu(2015) 등에서는 통사적 도출과정 자체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시비의문문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대중국어의 '嗎' 시비의문문은 경향성이라는 의미 해석, 통사적 성분 제약, 질문과 대답의 화용적 수행기능 등 의미·통사·화용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응축된 언어현상이다. 이에 본고는 정반의문문과 구별되는 '嗎' 시비의문문의 의미·통사·화용적 제반 현상 상호 간의 관련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시비의문문의 의문형식 자체가 지니는 의미 해석과 통사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의문형식의 의미·통사 특징과 응답방식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논의 과정에서 대조가 필요할 경우

능은 구분되므로, 본고에서는 화자의 경향성을 포괄적 의미해석의 일환으로 간주하였다.

정반의문문의 관련 현상에 대해서도 아울러 점검해 보기로 한다.

2. ‘嗎’ 시비의문문의 의미 해석과 통사 특징

1) 화자의 경향성 해석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비의문문이 전달하는 의미 해석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즉, 객관적인 질문으로서의 정반의문문과 달리 시비의문문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전에 긍정값 혹은 부정값에 대한 화자의 기대값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향성의 세부 유형, 개별 문장에서 경향성을 판별하는 기준과 범위가 온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Li and Thompson(1981), 袁毓林(1993), 劉月華(1987)에서는 중립적 해석과 비중립적 경향성으로 구분하였으나,³⁾ 黃國營(1986), 郭銳(2000)은 화자의 명제에 대한 의문과 확신의 정도에 따라 ‘嗎’ 시비의문문의 전달 의미를 5등급으로 세분하였다.⁴⁾ 劉月華(1987)은 부정형식일 때 긍정방향으로의 경향성을 지니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고, 특히 袁毓林(1993)은 예문 (6)과 같이 경향성 해석을 지니는 시비의문문을 부정사, ‘就, 只, 連, 是’ 등 특정 어휘가 유표적으로 사용된 경우로 국한시키고 이들은 ‘對(맞아요)’로 호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郭銳(2000)에서는 부정사는 고확신도와 저확신도 모두 가능하며, 예문 (7)과 같은 저확신도 시비의문문은 ‘對(맞아요)’를 수반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黃國營(1986)은 확신정도를 세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예문을 소개하였으나, (8)과 같이 동일한 명제라고

3) 袁毓林(1993)은 경향성이라는 용어 대신 의문문을 실질적 의문문(眞性問句)과 비실질적 의문문(非眞性問句)으로 양분하였다.

4) 黃國營(1986)은 거짓으로 확신 0, 진실로 확신 1, 진실 가능성 $\frac{1}{4}$ 혹은 $\frac{3}{4}$, 반신반의 $\frac{1}{2}$ 의 5등급으로 나누었고, 郭銳(2000)은 완전확신도(全確信度) 1, 고확신도(高確信度) 0.75, 중확신도(中確信度) 0.5, 저확신도(低確信度) 0.25, 영확신도(零確信度) 0의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의문과 확신이 절반을 차지하는 반신반의 $\frac{1}{2}$ 과 중확신도 0.5가 중립적 의미 해석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 확신정도는 가변적이며, 특히 (8b)와 같이 동일 맥락에서 상이한 확신도가 중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스스로의 분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6) A: 他不喜歡吃糖嗎?(그는 사탕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요?)
 B: 對, 他不愛吃。(맞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袁毓林1993:104]
- (7) A: 我把衣裳穿走怎麼辦, 不耽誤武老先生用嗎?(제가 의상을 입고 가면 어찌죠, 우선생님께서 쓰시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
 B: *對。 [郭銳 2000:15]
- (8) a. 확신도¹/₂: 請問, 這兒到王府井有公共汽車嗎?(말씀 좀 묻겠습니다. 여기서 왕푸징까지 버스가 있나요?)
 b. 확신도 ¹/₄ 과 ³/₄: #這兒到王府井有公共汽車嗎? 那我就坐公共汽車去吧。(#여기서 왕푸징까지 버스가 있나요? 그럼 버스 타고 가야겠네요.)⁵⁾ [黃國營 1986:132]

이처럼 시비의문문에 반영된 화자의 경향성은 특정한 형식표지의 출현 여부나 의문-확신의 미세한 정도 차이로 변별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Büring and Gunlogson(2000), Sudo(2013)을 참고하여 일견 명료해 보이나 동시에 모호한 화자의 경향성을 판별하고 분류하는 기준을 알아보고 이를 중국어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Büring and Gunlogson(2000), Sudo(2013)은 화자의 경향성을 크게 실증적 경향성(evidential bias)과 인지적 경향성(epistemic bias)의 두 부류로 구분하였다. 실증적 경향성이란 문맥증거(contextual evidence)에 기초한 화자의 태도를 말한다. 즉, 발화가 진행되는 담화 상황에서 담화 참여자 상호 간에 서로 공유되고 있거나 공유되고 있다고 믿는 문맥증거가 질문의 의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긍정값과 부정값이 결정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⁶⁾

5) 문장 앞의 '*' 표시는 통사적으로 비문법적인 문장을, '#'는 의미·화용적으로 부적합한 문장을 나타낸다.
 6) (9-11)의 문맥과 예문은 Büring and Gunlogson(2000:6-7)과 Sudo(2013:278)을 참고하여 중국어 상황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다.

- (9) [문맥] 창문 없는 사무실에 있던 화자가 비에 젖은 옷을 입은 동료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 (10) 긍정형 시비의문문
 a. 外面下雨嗎? (밖에 비가 오나요?)
 b. #外面天氣好嗎? (#밖에 날씨가 좋나요?)
- (11) 부정형 시비의문문⁷⁾
 a. #外面不下雨嗎? (#밖에 비가 안 오나요?)
 b. 外面天氣不好嗎? (밖에 날씨가 안 좋나요?)
- (12) 정반의문문
 a. #外面下不下雨? (#밖에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b. #外面天氣好不好? (#밖에 날씨가 좋나요 안 좋나요?)

(9)의 문맥에서 화자는 창문이 없는 사무실에 있었으므로 바깥 날씨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비에 젖은 옷을 입은 동료를 통해 비로소 비가 오는 상황을 공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9)에 제시된 문맥증거는 '밖에 비가 오고 있다/ 밖에 날씨가 좋지 않다'는 명제에 참의 진리치를 제공하므로, 화자는 '밖에 비가 오고 있다'는 긍정형 시비의문문 (10)이나 '밖에 날씨가 좋지 않다'는 부정형 시비의문문 (11)을 선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화자는 문맥증거를 통해 실증적으로 증빙 가능한 상황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에 순행하는 진리치의 명제에 편향된 태도를 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어에서 문맥증거에 기초한 실증적 경향성은 표면적인 의문형식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문맥증거에 대한 긍정값은 긍정형 시비의문문으로, 문맥증거에 대한 부정값은 부정형 시비의문문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9)에 제시된 문맥증거를 통해 화자는 긍정 혹은 부정명제에 대한 일정한 판단과 태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예문 (12)와 같이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배제된 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날씨 상황을 묻는 정반의문문은 적합하지 않게 된다.

문맥증거에 기초한 화자의 실증적 경향성과 달리, 인지적 경향성이란 화자의 인지세계(epistemic world)에서 옳다고 믿는 명제에 대한 믿음을 지칭한다. 즉,

7) 주지하듯이, 현대중국어의 부정형 시비의문문은 부정사가 직접 술어를 부정하는 형식 외에 '不是'로 부정하는 형식도 존재한다. 두 형식의 부정형은 전달의미, 도출기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추후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11)과 같이 직접 술어를 부정하는 형식만을 다루기로 한다.

실증적 경향성이 화자의 의도가 문맥증거와 부합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화자와 청자가 함께 공유하게 된 정보라면, 인지적 경향성은 청자와 무관하게 화자가 그렇다고 믿는 화자의 기대나 견해에 해당한다. 이 때 제시된 문맥증거는 화자의 인지적 경향성과 불일치하기 마련이다. 화자의 생각과 문맥증거가 일치하며 그에 대한 확인을 묻는 경우라면, 문맥증거에 기반한 실증적 경향성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 실례를 살펴보면, 다음 예문 (13-14)는 '你去學校(너는 학교에 간다)'라는 명제에 대해 상반된 진리치를 제공한다. 화자는 예문 (13)에서는 '토요일이므로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부정명제가, (14)에서는 '월요일에는 학교에 간다'는 긍정명제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13-14)의 문맥증거에는 이러한 화자의 사전 믿음이나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 (13) [문맥] 토요일에 수업이 없는데도 책가방 들고 집을 나서는 친구를 보고
 [의도]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으니 학교에 안 갈 것이다.
 a. 今天星期六, 你去學校嗎? (오늘 토요일인데 학교 가나요?)
 b. #今天星期六, 你不去學校嗎? (#오늘 토요일인데 학교 안 가나요?)
 c. #今天星期六, 你去不去學校? (#오늘 토요일인데 학교 가나요 안 가나요?)
- (14) [문맥] 월요일에 수업이 있는데도 집에 있는 친구를 보고
 [의도] 월요일에는 수업이 있으니 학교에 갈 것이다.
 a. #今天星期一, 你去學校嗎? (#오늘 월요일인데 학교 가나요?)
 b. 今天星期一, 你不去學校嗎? (오늘 월요일인데 학교 안 가나요?)
 c. #今天星期一, 你去不去學校? (#오늘 월요일인데 학교 가나요 안 가나요?)

이처럼 문맥증거와 달리 화자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화자의 태도를 인지적 경향성이라고 하며, 예문 (13-14)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의 인지적 경향성은 의문문의 표면 명제와 상반된 극성값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실증적 경향성과 대조적이다. 즉, 실증적 경향성의 용례 (10-11)에서 화자의 경향적 태도와 의문문의

표면 명제는 동일한 극성값을 지향하여 긍정의문문은 긍정적인 경향성을, 부정의문문은 부정적인 경향성을 보였다. 반면, 인지적 경향성에서 긍정형식 (13a, 14a)는 명제의 부정값 ‘학교에 가지 않는다’를 함축하는데 비하여, 부정형식 (13b, 14b)는 명제의 긍정값 ‘학교에 간다’를 함축하여 의문문의 표면명제와 화자의 인지적 경향성은 극성값에 있어 서로 상치된다. 또한 앞선 실증적 경향성의 예문 (12)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경향성에는 화자가 질문의 대답에 대해 사전에 특정한 극성값이 옳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중립적 입장에서 명제의 진리치를 묻는 정반의문문 (13c)와 (14c)는 부적절하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화자의 경향성을 실증적 경향성과 인지적 경향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중국어 시비의문문과 정반의문문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 (15)로 요약해볼 수 있다.⁸⁾

(15) 의문형식과 화자의 경향성

의문형식	의문문의 명제	실증적 경향성	인지적 경향성
시비	VP嗎?	p	~p
	不VP嗎?	~p	p
정반	V不V?	pV~p	#

(15)의 도표에서 정반의문문은 늘 화자의 태도와 무관하게 의문문에 제시된 명

8) Sudo(2013)은 실증적 경향성과 인지적 경향성을 분류하고 이를 영어와 일본어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였는데, 특정 경향성에 대한 긍정/부정값은 개별 언어에 따라, 또한 동일 언어에서도 의문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한편 장경희(1982)은 한국어 의문문을 분석하면서 화자의 질문 의도를 서실(敍實)적 가정과 서상(敍想)적 가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장경희(1982:103)에 따르면, 서실적 상황이란 화자의 믿음과 관계없이 사실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사실적 세계이고, 서상적 상황이란 화자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믿음의 세계라고 하였다. 이는 일견 Büring and Gunlogson (2000), Sudo(2013)의 실증적 경향성과 인지적 경향성에 대응되는 듯이 보이지만, (14b)와 같이 긍정값을 가정한 부정의문문을 장경희(1982)에서는 ‘서실의문문’으로 간주하였고, 긍정의문문은 부정값을 함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기본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장경희(1982)이 서실적 가정을 문맥증거의 일환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한 듯 하다. 본고에서 채택한 실증적 경향성과 인지적 경향성은 화자의 믿음·기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모두 서상적이며, 담화맥락에서의 문맥증거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서실적이다.

제의 긍정/부정값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중립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시비의문문은 대답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서 특정한 경향성을 수반하므로, 청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는 전형적인 의문문의 화행과 다른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령, 실증적 경향성은 의문형식의 표면명제와 화자의 경향성이 일치하므로, 화자가 문맥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긍정/부정값에 대해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시비의문문이라는 형식을 활용하게 된다. 또한 인지적 경향성은 의문형식의 표면명제와 상반된 극성값을 함축하므로, 의문형식에 드러난 명제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반박하거나 더 나아가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화행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徐盛桓(1999), 鄧曉華(2001), 王雪(2011), 邵敬敏(2012) 등에 언급된 시비의문문의 다양한 화행 효과는 바로 이러한 경향성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袁毓林(1993), 郭銳(2000)에서는 확신정도에 기초한 화자의 경향성을 전제(presupposi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胡德明(2010)은 반어문에서 형식과 상반된 부정적 의미는 담화환경에 제공된 정보가 화자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며, 이를 전제와 구별하여 필요조건(prerequisite)으로서 화자의 주관적 태도로 간주하였다.⁹⁾ 일견 상이해 보이는 전제에 대한 이 두 견해는 본고에서 앞서 살펴본 실증적 경향성과 인지적 경향성에 따른 화자의 태도에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袁毓林(1993), 郭銳(2000)에서 언급한 전제를 화용론적 전제로 본다면,¹⁰⁾ 이는 문맥증거로 제시되어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기반(Common Ground)에 해당되며, 화자

9) 胡德明(2010:72)에 의하면, 전제란 화자와 청자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식으로서 아래 예문 (i-ii)의 (a)에 해당된다면, 필요조건이란 (b)처럼 화자의 주관적 생각일 뿐 청자와의 공유가 필수적이지 않다.

(i) 我還想吃。(나는 더 먹고 싶다.)

a. 我已經吃了。(나는 이미 먹었다.) b. 我沒吃飽。(나는 배불리 먹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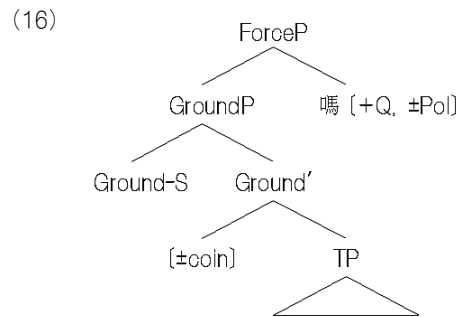
(ii) 我不想再吃了。(나는 더 먹고 싶지 않다.)

a. 我已經吃了。(나는 이미 먹었다.) b. 我吃飽了。(나는 배불리 먹었다.)

10) Levinson(1983)에 따르면, 전제는 문장의 의미관계와 진리치 조건으로 이해되는 의미론적 전제와 담화맥락의 적정성 조건을 통해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된 화용론적 전제로 나눌 수 있다.

의 실증적 경향성은 이 공통기반에 부합하는 순방향의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Grice(1989), Stalnaker(2002)에 의하면, 공통기반은 담화 참여자 사이에 이미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경 정보로, 만약 화자가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통기반이 화자의 믿음과 실제 공유된 정보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때 전제 조정(presupposition accommodation)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胡德明(2010)의 반어문 유발 조건은 이러한 전제 조정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하면, 화자의 인지적 경향성은 공통기반 자체가 아니라 화자의 믿음에 입각하여 공통기반의 오류를 바로잡고 공통기반의 정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화자의 인지적 경향성과 공통기반이 상치될 때 발생하므로, 결과적으로 의문형식의 표면 명제와는 역방향의 의미를 전달하여 반어의 화용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실증적 경향성과 인지적 경향성, 전제와 전제 조정 등의 이원적 개념을 아우르고, 화자의 경향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문법의 연산체계 안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Rizzi(1997)의 세분화된 통사구조에 Wiltschko(2014, 2017)이 제안한 배경구(Ground Phrase: GroundP)를 활용하여 시비의 문문의 핵심 구조를 다음 (16)과 같이 도식화하였다.¹¹⁾



먼저 최상층부에 위치하는 어기사구(Force Phrase: ForceP)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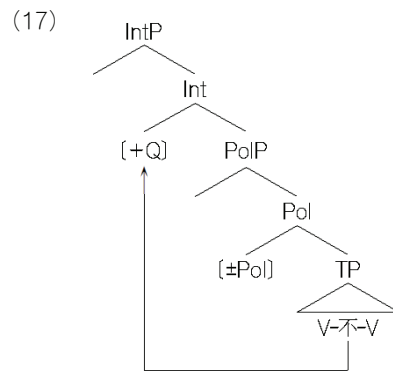
11) 시비의문문의 구조 설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부 투사는 생략하였다. 또한 중국어의 문말 어기조사 '嗎'의 표면적 어순을 고려하여, 어기사구(ForceP)는 선행(head-initial) 구조 대신 후행(head-final) 구조를 채택하였다.

Rizzi(1997)은 통사구조 외연부의 보문소구(Complementizer Phrase: CP) 층위를 기능범주에 따라 각각의 독립된 투사로 세분하였는데, 그 중 어기사구는 문장 전체의 어기를 담당한다. 어기조사 '嗎'는 이 위치에서 의문의 어기 [+Q]와 함께 시비의문문의 긍정/부정값 [\pm Polarity: Pol]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배경구는 Wiltschko(2014, 2017)에서 채택한 개념으로, 이는 담화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사구조 안에 가시화하는데 유용한 도구를 제공해 준다. Wiltschko(2014, 2017)은 핵심적인 기능투사 외곽의 배경층 위(grounding layer)에 응답구(Response Phrase: RespP)와 배경구를 설정하였는데, 화자 지향적 혹은 화자에 기반한 배경(Speaker's Ground: Ground-S)과 그 아래 시제구(Tense Phrase: TP)로 대표되는 실질적인 사건명제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pm coincidence: coin]의 자질값이 결정된다. 이처럼 배경구는 담화 맥락에서 화자의 인지정보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嗎' 시비의문문에 특징적인 화자의 경향성을 담아낼 수 있다.¹²⁾ 가령, 앞서 살펴본 실증적 경향성은 문맥중거에 기반하여 이에 순행하는 방향으로 화자의 태도가 결정되므로, 배경구에 [+coin]의 일치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인지적 경향성은 화자의 사전 믿음이나 기대와 실제 문맥정보에 괴리가 발생할 때 초래되므로, 배경구에서 [-coin]의 불일치값으로 표시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Rizzi(1997)과 Wiltschko(2014, 2017)에 기초한 (16)의 통사구조를 통해 통사구조와 의미·화용정보를 넘나드는 '嗎' 시비의문문의 경향성 해석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한편, 정반의문문과 같이 화자의 경향성을 수반하지 않는 중립적인 의문문의 경우에는 Holmberg(2016)의 분석을 참고할 만 하다. Holmberg(2016)은 시비의문문의 긍정/부정값을 일종의 개방형 변항(open variable)으로서 독립적인 극성자질구(Polarity Phrase: PolP)에 위치시켰는데, Wiltschko(2017)은 이처럼 중립적 의문문은 배경구를 투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정반의문문의 통사구조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 (17)과 같다.¹³⁾

12) Wiltschko(2014, 2017)에서는 응답어 분석 과정에서 응답구 아래에 배경구를 설정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의문문 자체에 담긴 화자의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질문의 통사구조에 적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비의문문 (16)과 정반의문문 (17)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는 배경구를 통해 화자의 경향성이 반영되는지의 여부이고, 둘째는 의문자질 [+Q]가 투사되는 위치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어서 두 의문유형에 보이는 통사적 공기 성분 제약 현상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자.

2) 통사적 공기 성분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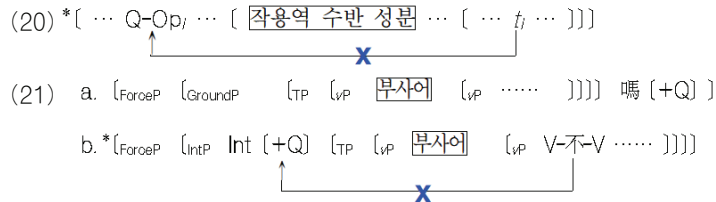
지금까지 시비의문문과 정반의문문이 의문문의 전달의미에서 보이는 경향성 해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외 통사적 측면에서도 두 의문유형은 특정 성분과 함께 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서두에서 예시한 예문 (3)의 빈도부사 ‘常(늘, 항상)’ 외에도, Ernst(1994), Law(2006)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도, 시간, 어기부사 등 사건술어와 관련된 부사 또한 정반의문문과는 공기할 수 없다. 반면 아래 예문 (18)을 시비의문문 (19)로 교체하면 모두 문법적이다.

(18) a. *他很聰明不聰明?

13) Holmberg(2016)은 의문자질 [+Q]와 극성자질 [±Pol]을 별도로 분리하고 극성자질구의 상층부를 보문소구(CP)로 통칭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의문사구(Interrogative Phrase: IntP)로 명세화하였다.

- b. *小蘭先走不走?
 - c. *張三已經離不離開?
 - d. *他一定去不去?
- (19) a. 他很聰明嗎? (그는 매우 똑똑한가요?)
 b. 小蘭先走了嗎? (시아오란은 먼저 갔나요?)
 c. 張三已經離開了嗎? (장산은 이미 떠났나요?)
 d. 他一定去嗎? (그는 꼭 가나요?)

부사어와의 공기에 있어서 (18-19)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16-17)의 수형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먼저 통사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자. 黃正德(1989), Huang(2014), Wu(2015), Holmberg(2016) 등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반의문문은 (17)과 같이 술어동사의 중첩 후 성분 생략을 통해 V-不-V 형식으로 고정된 후 의문자질의 점검을 위해 의문사구(IntP)로 이동하게 된다.¹⁴⁾ Beck and Kim(1997, 2006)은 예문 (3, 18)에 보이는 부사어나 '就, 只有' 등 초점으로서 작용역(scope)을 갖는 성분들은 정반의문문의 의문운용자가 이동하는 경로에서 간섭효과(Intervention Effect)를 초래하게 되므로 비문법적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하여, 시비의문문은 (16)처럼 문말 어기조사 '嗎'가 어기사구에 직접 투사되므로 작용역을 지니는 성분의 출현 유무와 무관하게 의문자질을 점검할 수 있다. 다음 (20)은 간섭효과가 발생하는 환경을 도식화한 것이고, (21)은 시비의문문 (21a)와 정반의문문 (21b)에서 의문자질이 인가되는 통사위치 차이에 따른 간섭효과 발생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14) 정반의문문의 술어 중첩 후 어느 위치의 성분이 삭제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변형 형식이 가능하다.

(i) a. 他去學校不去學校? b. 他去學校不去學校? c. 他去學校不去學校?

(20-21)은 다분히 구조 중심적이지만, 초점, 부사어, 의문자질 등 작용역을 수반하는 성분 사이의 공기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화용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주(2015)은 중국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비의문문과 정반의문문에 보이는 성분 공기 제약 현상을 초점통일원칙과 인지적 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즉, 정반의문문은 늘 의문초점을 수반하는데 비하여 시비의문문은 중립적 해석을 지닐 때만 의문초점이 부여되므로 타 초점성분과 공기할 수 없고, 시비의문문 중 비질의성 경향성 해석을 지닐 때만 초점성분과 함께 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래 예문의 합법도 대조에서 알 수 있듯이 의문자질 [$\pm Q$]와 초점자질 [$\pm F$]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다.

- (22) a. 他是去學校嗎? (그는 학교에 가나요?)
 b. *他是去不去學校?
 (23) a. 他是什麼時候去學校? (그는 언제 학교에 가나요?)
 b. 他什麼時候去學校嗎? (그가 언제가는 학교에 갈까요?)
 c. *他是什麼時候去學校嗎?

먼저 예문 (22)에서 강조초점 표지로 기능하는 '是'는 타 성분이 아닌 술어의 사건을 강조하지만, 시비의문문 (22a)와 달리 정반의문문 (22b)는 비문법적이다. 이처럼 정반의문문은 [$+Q, -F$]의 자질집합을 지니므로, 부사어와의 공기제약을 초점통일원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23)에서 의문사는 의문용법 (23a)와 비의문용법 (23b)로 활용될 때 각각 [$+Q, +F$]와 [$-Q, -F$]의 자질집합을 보인다. 따라서 (23b)처럼 의문사와 '嗎'가 동시에 출현할 때는 초점성분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23c)는 여전히 부적절하다. 따라서 시비의문문과 정반의문문에서 관찰되는 공기제약 현상은 다중초점이라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작용역을 지닌 성분 사이의 상호작용과 간섭효과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어서 김현주(2015)에서는 화자의 주관적 경향성 및 의문정도와 부사어의 공기 여부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현상에 대한 기술을 넘어선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16-17)에 제시된 수형도는 시비의문문과 정반의문문의 의문자질 점검 위치라는 통사적 측면 외에도, 배경구와 극성자질구라는 투사를 통해 화자의 경향성이라는 의미·화용 해석 여부를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정반의문문에 투사된 극성자질구가 명제의 긍정/부정값에 대한 화자의 중립적 태도를 전달한다면, 시비의문문에 투사된 배경구는 화자의 인식에 기반한 화자 지향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 때 화자의 인식은 청자와 공유된 공통기반 자체가 아니라, 공통기반과의 일치를 통해 확인하게 된 실증적 인식일 수도 있고, 공통기반과의 불일치 상황에서 공통기반 정보의 오류를 조정하고 갱신하는 인지적 인식일 수도 있다. 이처럼 시비의문문에 투사된 화자 지향적 배경구는 실증적/인지적 경향성을 불문하고 공통기반을 필수적인 전제로 수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초점, 빈도, 어기 등 작용역을 지니는 성분 또한 사건명제를 전제로 하고, 그 전제를 바탕으로 의미적 술어로서 부각된 정보이다. 즉, 작용역을 지니는 성분들은 전제 혹은 공통기반의 바탕 위에 성립되는데, 시비의문문의 배경구는 이들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양자가 자연스럽게 양립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작용역을 배제하는 성분은 전제를 유발하므로, 이 성분의 출현을 통해 화자의 경향성에 필요한 배경구의 공통기반을 제공하게 되는 선순환이 발생한다. 반면 정반의문문은 명제 자체의 극성값을 청자에게 확인할 뿐 전제로서의 공통기반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특정한 환경 하에서만 함께 출현할 수 있다.¹⁵⁾

15) 가령 예문 (ia)는 (ib)의 전제적 명제와 빈도부사 '常(늘)'로 구성된다. 따라서, (iia)처럼 술어 자체의 정반의문문은 불가능하지만, 빈도부사를 정반의문 형식으로 취하면 비문법성이 개선된다.

- (i) a. 星期六他常去學校。(토요일에 그는 늘 학교에 간다.)
b. [常 [星期六他去學校]]. (토요일에 그는 학교에 간다. 그 일은 자주 발생한다.)
- (ii) a. *星期六他常去不去學校?
b. ?星期六他常不常去學校? ((직역) 토요일에 그는 학교에 간다. 그 일은 자주 발생하는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가?)

3. ‘嗎’ 시비의문문에 대한 응답방식

이상에서 정반의문문과 구별되는 시비의문문의 특징을 의문문 자체가 전달하는 경향성 해석과 통사 성분과의 공기 제약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의문에 대한 응답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시비의문문의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비의문문과 정반의문문 모두 질문에 대해 긍정값 혹은 부정값 중 하나를 직접 그 대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술어동사나 명제 전체가 그 응답 형식으로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是(네)/ 不是(아니오)’의 응답어는 시비의문문에서만 허용된다. 이는 Chao(1968) 이래 중국어 의문문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자의 경향성과의 연계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왜 응답어 형식이 화자의 경향성과 결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응답어 ‘是(네)/ 不是(아니오)’가 사용되는 예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환경에서 이들이 허용되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 예문을 보자.

(24) [문맥] 계속 하품하고 있는 친구를 보고

[의도] 피곤할 것이다.

A: 一直打哈欠, 你累嗎?

(계속 하품하고 있는데, 피곤하세요?)

B: a. 是, 我很累。(네, 피곤해요)

b. *是, 我不累。

c. *不是, 我很累。

d. 不是, 我不累。(아니오, 안 피곤해요.)

(25) [문맥] 비에 젖은 옷을 입은 동료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의도] 날씨가 안 좋을 것이다.

A: 外面天氣不好嗎?

(밖에 날씨가 안 좋나요?)

B: a. *是, 很好。

b. 是, 不好。(네, 안 좋아요.)

c. 不是, 還好。只是下一點毛毛雨。(아니오, 그런대로 괜찮아

요. 가랑비만 약간 내릴 뿐이에요.)

d.*不是, 不好.

예문 (24-25)는 모두 문맥증거에 기초한 화자의 실증적 경향성을 나타내는 예문으로, 긍정형 시비의문문 (24)는 긍정값 명제를, 부정형 시비의문문 (25)는 부정값 명제를 화자가 기대하는 극성값으로 함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어 '是(네)/ 不是(아니오)'는 질문의 극성값과 동일하며, 전형적인 진리치 기반 응답체계(truth-based answer system)를 취하고 있다.¹⁶⁾ 다음 예문 (26-27)은 화자의 인지적 경향성을 나타내는 긍정형과 부정형 시비의문문으로, 이때는 실증적 경향성의 예문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

- (26) [문맥] 토요일인데도 가방 들고 나가는 친구를 보고
 [의도] 토요일이니 학교에 안 갈 것이다.
 A: 星期六放假, 你去學校嗎?
 (토요일 휴일인데 학교 가나요?)
 B: a. 是, 我去學校。(네, 학교 가요.)
 b. ??是, 我不去學校, 去見朋友。
 (??네, 학교 안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c. ??不是, 我去學校。今天有補課。
 (??아니오, 학교 가요. 오늘 보충수업 있거든요.)
 d. 不是, 我不去學校。(아니오, 학교 안 가요.)
- (27) [문맥] 월요일에 집에 있는 친구를 보고
 [의도] 월요일이니 학교에 갈 것이다.
 A: 星期一有課, 你不去學校嗎?
 (월요일에 수업 있는데, 학교 안 가나요?)
 B: a. ??是, 我去學校。(??네, 학교 가요.)
 b. 是, 我不去學校。(네, 학교 안 가요.)
 c. 不是, 我去學校。(아니오, 학교 가요.)

16) 이와 반대로 (i)처럼 응답어가 답변 내 명제의 극성값과 호응하는 것을 극성값 기반 응답체계(polarity-based answer system)라고 한다.

(i) A: Is he coming? (그가 오나요?)
 B: a. Yes, he is. (네, 옵니다.) b.*Yes, he isn't.
 c.*No, he is. d. No, he isn't. (아니오, 안 와요.)

두 종류 응답체계의 명칭과 분류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Kuno(1973)을 참조.

d. ??不是, 我不去學校。今天校慶放假。(??아니오, 학교 안 가요. 오늘 개교기념일이라 쉬어요.)

(28) [문맥] 오랫동안 일하고도 계속 일하는 동료들 보고
[의도] 오랫동안 일했으니 피곤할 것이다.

A: 做了那麼久, 你不累嗎?
(그렇게 오래 일하고도 피곤하지 않으세요?)

- B: a. 是, 我很累。(네, 피곤해요.)
- b. 是, 我不累。(네, 안 피곤한데요.)
- c. 不是, 我很累。(아니요, 피곤해요.)
- d. 不是, 我不累。(아니요, 안 피곤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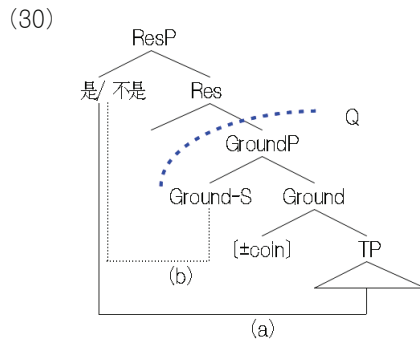
위 예문은 모두 화자의 인지적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문문의 표면명제와 화자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명제의 극성값은 서로 상반된다. 다시 말하면, 긍정형 의문문 (26)은 '학교 안 간다'는 부정값이, 부정형 의문문 (27-28)은 각각 '학교 간다'와 '피곤하다'는 긍정값을 함축하고 있다. 이 때 응답어 '是(네)/ 不是(아니오)'는 일차적으로 실증적 경향성의 예문 (24-25)처럼 진리치에 기반한 체계를 따른다. 즉, 긍정형 의문문 (26)의 (a,d)와 부정형 의문문 (27-28)의 (b,c)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긍정형 의문문 (26)의 (b,c)와 부정형 의문문 (27-28)의 (a,d)는 이와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부정형 의문문 (27-28)의 (a,d)는 극성값에 기반한 응답 체계를 보이며, 긍정형 의문문 (26b)는 진리치와 극성값에 기반한 응답 체계 모두와 부합하지 않는 특수한 결과를 보여준다. 인지적 경향성의 비전형적 용례들은 전형적으로 진리치 기반 응답 체계에 비해 합법도 판단 정도가 다소 낮아지기는 하지만, (24-25)의 비문법적 문장에 비해서는 허용도가 높다.¹⁷⁾ 다음 (29)는 이상에서 관찰한 언어현상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전형적인 진리치 기반 응답 체계와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용례이다.

17) (27-28)과 같이 동일한 통사·의미적 환경을 지니는 경우에도 문맥 상황에 따라, 또 개개인에 따라 합법도 판단 정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합법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보다 정직한 고찰이 필요하다.

(29) 의문형식에 따른 화자의 경향성 및 응답방식

의문 형식	응답어	대답 내 명제			
		실증적 경향성		인지적 경향성	
		p	~p	p	~p
p嗎	是	0	*	0	??
	不是	*	0	??	0
~p嗎	是	*	0	0/??	0
	不是	0	*	0	0/??

표 (29)에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예문 (24-28)의 응답 체계를 되짚어 보면, 실증적 경향성일 때는 의문형식 내 표면명제와 화자가 지향하는 명제, 그리고 응답어의 호응명제까지 모두 동일하게 진리치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인지적 경향성일 때는 의문형식의 표면명제와 화자가 지향하는 명제의 극성값이 상반된다. 이 때 응답방식은 일차적으로 진리치에 기반하여 의문형식 내 표면명제의 극성값과 일치하고 있으나, 동시에 화자의 인지적 경향성이 함축하고 있는 상반된 극성값에 호응하는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명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수형도로 표시하면 아래 (30)과 같다.¹⁸⁾



18) 그러나 인지적 경향성에서 진리치에 기반한 응답방식은 실질적으로는 실증적 경향성에 다름 아니다. 즉, (26)의 (a,d)와 (27-28)의 (b,c)에서 청자는 질문에 담긴 화자의 함축적 의도가 아니라 표면적 명제를 화자의 질문 의도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답변한 것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인지적 경향성에 대한 답변은 (29)의 음영 처리된 부분과 (30b)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30)에서 Q로 구획한 부분은 앞서 (16)에 제시된 시비의문문의 수행도에서 의문을 표시하는 어기조사 '嗎'가 투사된 어기사구 이하의 통사구조를 옮긴 것으로, 그 상층부에 Wiltshcko(2017)의 응답어구 투사를 더함으로써 응답어 '是(네)/不是(아니오)'가 질문 내 명제와 호응하게 된다. 중국어 시비의문문의 전형적인 응답 체계는 진리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a)로 연결된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반면, 인지적 경향성에 나타난 비전형적 응답 체계인 (29)의 음영부분은 (b)로 대표되며, 표면적인 명제 이면에 함축된 화자의 의도에 해당되므로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전형적 응답 체계인 (a)는 배경구 투사가 [+coin]값으로 실증적 경향성을 나타낼 때, 비전형적인 응답체계인 (b)는 배경구 투사가 [-coin]값을 지녀 인지적 경향성을 나타낼 때만 발생하게 된다.

Holmberg(2016)에 따르면, 시비의문문의 대답은 질문을 구성하는 의문형식의 명제에 응답어를 통해 극성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어 시비의문문의 응답체계를 살펴보면, 영어의 'Yes(네)/ No(아니오)'와 달리 중국어의 '是(네)/ 不是(아니오)'는 명제의 극성값 [\pm Pol]을 부여하기보다는 화자의 실증적/인지적 경향성에 대해 청자의 동의나 확인을 나타내는 면모를 보인다. 呂叔湘(1990), 袁毓林(1993), 郭銳(2000)을 비롯한 선행연구에서 경향성을 지닌 시비의문문의 응답어 '是(네)/ 不是(아니오)'는 '對(맞아요)/不對(틀려요)'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언급은 이를 방증해 준다. Roelofsen and Farkas(2015), Wiltshcko(2017) 등 응답어가 긍정/부정의 극성값 외에 일치값으로서 [\pm Agree]라는 다중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 또한 이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제공해 준다.¹⁹⁾

한편 시비의문문과 달리 정반의문문은 (17)과 같이 극성값의 선택항이 부가되어야 하므로, 일치값을 나타내는 '是(네)/ 不是(아니오)'와 호응하지 못하고 질문 내 명제 중 긍정/부정값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 Roelofsen and Farkas(2015)은 응답어가 절대적 극성 자질(absolute polarity feature)을 지닐 때 긍정/부정의 극성값을 부여하고, 상대적 극성자질(relative polarity feature)을 지닐 때 동의(agree)/부동의(reverse, disagree)의 일치값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4. 나오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중국어의 시비의문문과 정반의문문은 질문에 주어진 명제의 극성값을 묻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두 유형의 의문문은 의문문 자체에 화자의 경향성 해석이 함축될 수 있는지의 여부, 작용역을 배태하는 성분과 공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차이를 보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응답어 '是(네)/ 不是(아니오)'를 허용하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도 구별된다. 본고는 이처럼 정반의문문과 구별되는 '嗎' 시비의문문의 의미·통사·화용적 제반 현상 상호 간의 관련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어떻게 이를 문법의 연산체계 안에서 명시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의문형식 자체의 특징을 경향성 의미 해석과 통사 성분 공기 제약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의미적 경향성을 질문에 담긴 화자의 사전 믿음 혹은 태도라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실증적 경향성과 인지적 경향성으로 세분하여 담화맥락에 따른 해석 판별의 기준을 제공하였다. 또한 Rizzi(1997)의 세분화된 통사구조에 Wiltschko(2014, 2017)에서 제시된 화자를 지향하는 배경구를 접목시킴으로써 화자의 경향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명시적인 통사구조로 가시화하였으며, 의문문의 통사구조에서 극성투사 외에 화자의 배경구의 투사 유무가 정반의문문과 시비의문문의 차이를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함을 규명하였다.

이어서 화자의 배경구 투사가 수반하는 공통기반과 전제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초점성분을 비롯하여 작용역을 배태하는 통사 성분이 시비의문문에서만 공기하는 통사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통사구조에서 시비의문문과 정반의문문이 의문자질을 점검하는 상이한 위치 또한 특정 통사 성분의 공기 제약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시비의문문과 정반의문문의 상이한 응답방식 또한 응답어의 다원적 기능과 화자의 배경구 투사 여부와 관련한 일치값의 점검 방식 차이에서 비롯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지적 경향성을 나타내는 질문과 응답어 사이의 비

전형적 응답방식에 주목하고, 일치기능으로서의 응답어 '是(네)/ 不是(아니오)'의 자질점검 대상이 화자의 배경구와 질문 내 명제라는 이원화된 체계로 구분됨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였다.

〈參考文獻〉

- 郭銳, 「“嗎”問句的确定性度和回答方式」, 『世界漢語教學』 第2期, 2000.
- 김현주, 「현대중국어 '嗎' 의문문과 정반의문문의 화용·인지적 특징 연구 —“你很忙嗎?”와 “*你很忙不忙?”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제60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15.
- 徐盛桓, 「疑問句探詢功能的遷移」, 『中國語文』 第1期, 1999.
- 邵敬敏, 『現代漢語疑問句研究』,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
- 邵敬敏, 「是非問內部類型的比較以及“疑惑”的細化」, 『世界漢語教學』 第6期, 2012.
- 呂叔湘, 『中國文法要略(呂叔湘文集 第一卷)』, 北京, 商務印書館, 1990[1956].
- 王雪, 「現代漢語是非問句功能偏移研究」, 黑龍江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 鄧曉華, 「疑問句的功能偏離——轉喻功能及其實現」,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碩士學位論文, 2001.
- 劉月華, 「用“嗎”的是非問句和正反問句用法比較」, 『句型和動詞』, 北京, 語文出版社, 1987.
- 袁毓林, 「正反問句及相關的類型學參項」, 『中國語文』 第2期, 1993.
- 장경희, 「국어 의문법의 긍정과 부정」, 『국어학』 제11집, 국어학회, 1982.
- 胡德明, 「從反問句生成機制看反問句否定語義的來源」, 『語言研究』 第3期, 2010.
- 黃國營, 「“嗎”字句用法初探」, 『語言研究』 第2期, 1986.
- 黃正德, 「漢語正反問句的模組語法」, 『中央研究院第二屆國際漢學會議論文集(下)』, 臺北, 中央研究院, 1989.
- Beck, Sigrid, and Shin-Sook Kim, “On *wh*- and operator scope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6, 1997.
- Beck, Sigrid, and Shin-Sook Kim, “Intervention effects in alternative questions”, *Journal of Comparative Germanic Linguistics* 9, 2006.
- Büring, Daniel and Christine Gunlogson, “Aren't positive and negative polar questions the same?”, Ms. UCSC, 2000.

- Chao, Yuen-Ren, *A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Ernst, Thomas, "Conditions on Chinese A-not-A questions",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3(3), 1994.
- Grice, H. Paul,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 Hamblin, Charles, "Question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36, 1958.
- Holmberg, Anders, *The Syntax of Yes and N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Huang, Ray, "Left periphery and Chinese Yes-No ques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1(2), 2014.
- Kuno, Susumu,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1973.
- Law, Paul, "Adverbs in A-not-A questions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5, 2006.
- Levinson, Stephen,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오익환 외 역, 『화용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3.]
- Li, Charles and Sandra A. Thompson,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박정구 외 역, 『표준중국어문법』, 서울, 한울아카데미, 1989.]
- Rizzi, Luigi,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L. Haegeman(ed.), *Elements of Grammar*, Dordrecht, Kluwer, 1997.
- Roelofsen, Floris and Donka Farkas, "Polarity particle responses as a window onto the interpretation of questions and assertions", *Language* 91(2), 2015.
- Stalnaker, Robert, "Common ground", *Linguistics and Philosophy* 25, 2002.
- Sudo, Yasutada, "Biased polar questions in English and Japanese", in D. Gutzmann and H.-M. Gärtner(eds.), *Beyond Expressives: Explorations in Use-Conditional Meaning*, Leiden/Boston, Brill, 2013.
- Wiltschko, Martina, *The Universal Structure of Categories: Towards a Formal Ty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Wiltschko, Martina, "Response particles beyond answering", in L. Bailey and M. Sheehan(eds.), *Word Order and Syntactic Structure*, open access, Language Science Press, 2017.

Wu, Meng-Jung, "The syntax of polar questions and their answers in Taiwanese",
PhD dissertation, Newcastle University, 2015.

〈Abstract〉

Biased Interpretation and Response Patterns
of Mandarin 'MA(嗎)' Polar Question

Lim, Jeong-Hyun

There are two types of polar questions in Mandarin Chinese, i.e., sentence final particle 'MA(嗎)' question and V-not-V question. It is well-known fact that those two question types are distinguished in three ways. First, only 'MA' polar question implies speaker's bias reading, which can be divided into evidential bias and epistemic bias. Second, only 'MA' polar question can co-occur with scope bearing elements. Third, only biased 'MA' polar question allows answers with response particle 'Shi(是)/ Bu shi(不是)'. Our main concern is how to effectively capture these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properties typical in 'MA' polar question, and how to clarify the interface phenomena observed.

Rizzi(1997)'s hierarchically organized fine-grained syntactic structure and Wiltschko(2014, 2017)'s speech act related functional projections provide useful tools to associate the interface between syntactic structure and discourse-related notion. Especially, by setting speaker-oriented Ground projection in the syntax of question, the vague notion speaker's bias can be overtly encoded into syntactic structure. Different syntactic restrictions on scope-bearing elements in two types of polar questions can also be explained by connecting similar necessary conditions on speaker's Ground projection and scope-bearing elements, as well as by positing distinct syntactic positions licensing interrogative feature of 'MA' and V-not-V questions. Lastly, this paper shows that the dual-function of response particles and agreement feature value of them are responsible

for the different answering patterns of the two types of polar questions in Mandarin Chinese.

Key words: polar questions, sentence final 'MA' question, V-not-V question, biased reading, co-occurrence restriction, response particle, speaker's ground

이 논문은 2019년 7월 23일에 접수되어 2019년 8월 1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8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